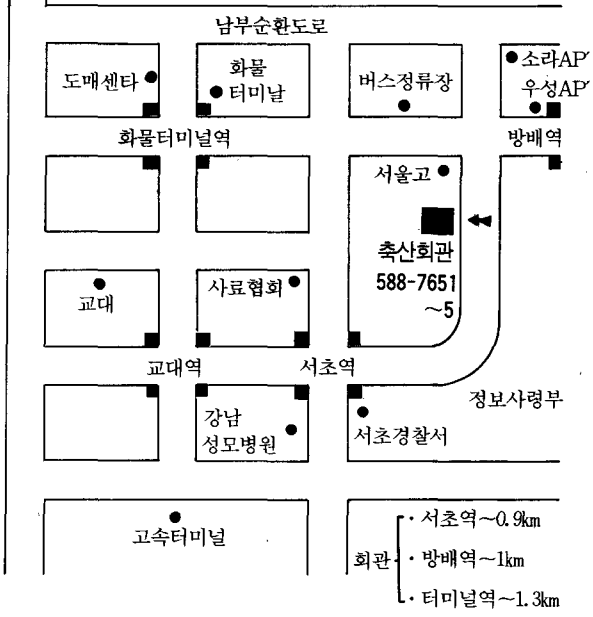
대한 양계협회 소식

본회 사무실 이전

◇이전약도



본회 및 종축개량협회, 낙농육우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축산회관이 서초구 서초동 1516-5번지에 신사옥을 완공하게 됨에 따라 오는 12월20일경 이전한다. (전화번호 588-7651~5)

그간 신사옥 건립은 종축개량협회가 주관하여 추진하였으며, 총건평 2,244.58㎡(679평)로 지하1층 및 지상6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346.40㎡로 전시관으로 사용되며, 2층부터 5층까지는 342.42㎡로 각 협회 사무실로 사용하게 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산회관 사옥은 그간 각 협회의 업무가 전문화되면서 사무실로 이용하기에는 비좁아 효율성이 낮아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하게 되었는데 신사옥에는 전용주차장까지 마련되어 있어 본회를 이용하는 각 회원들의 불편을 덜어주게 되었다.

채란양계 발전방향 심포지움 개최
—지난 11월26일, 1200여명 참석 성황리에—

채란양계산업의 고도성장 기반을 마련키 위한 대책방안에 관한 심포지움이 지난 11월26일(토) 반도유스호스텔에서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본회와 한국가금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퓨리나코리아가 협찬하여 120여명의 채란양계 관련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간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제도 및 생산자단체 운영방안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여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단합하는데 오히려 난립상의 문제로 저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제도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여 생산자들이 스스로 합당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발표내용을 대분하면 1. 쿼터제, 2. 양계조합, 3. 계열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날 발표자 및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계조합을 중심으로한 채란계 산업의 안정화와 발전방안

—좌장 : 임병규(서울사료 전무)

—발표자 : 강희구(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장)

○경제통합에 의한 난계산업의 안정발전

—좌장 : 서기원(농협대학 교수)

—발표자 : 박영인(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장)

○계란공급관리 방식에 의한 채란양계산업의 안정화방안

—좌장 : 이재근(전고려대교수)

—발표 : 오봉국(서울대 농대학장)

자세한 발표 내용은 본지 12월호 본문에 게재되어 있다.

계란가격 안정대책 건의에 대한 회신 —공판장 설치, 불가능 회신 보내와—

본회가 계란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5월(본지 88년 6월호 147페이지 게재)에 농림수산부와 축협에 건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이 지난 11월10일자로 축협으로부터 전달되었다.

축협이 이 건의서에 대한 자세한 진상을 검토하기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에 조사케한 공판장 부지할애 요청서에 대한 회신을 보면, 기존 축협 가락공판장과 축산물 직판장도 특유의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어 양계산물이 추가될 경우 시장환경 악화가 우려된다고 하였으며, 할애요청된 부지가 냉동창고와 축산물 직판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신축 공간 여유가 없어 교통소통에 저해를 줄 우려가 있어 소요부지 할애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축협은 자체적으로 공판장 설치와는 관계없이 양계산물 가격 안정사업을 위해 현재 서울·경기지역 2개소에 집하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에도 지역 업종(양계)조합 설립추진 움직임에 따라 지방에도 계란집하장의 확대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양계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배합사료용 국산옥수수 사용중지 요청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축협중앙회와 한국사료협회에 배합사료에 국산옥수수 사용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불안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대외적인 개방화 추세와 관련 축산물 수입개방을 중요함에 따라 국내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축산물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절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국내 옥수수 재배농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비싼 국산옥수수를 수입옥수수 대신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함으로 비용부담을 축산농가에 부담시키고 있다. 87년 약 5만톤의 국산옥수수 사용으로 140억원의 부담이 있었고, 88년에는 kg당 330원이 비싼 가격으로 약 5만톤의 국산옥수수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어 160억원의 사료가 인상부담을 축산농가가 감당해야할 형편에 있다.

옥수수 경작 농민을 위해 축산농민이 비용부담을 감수하는 농민만의 부담전가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사이므로 국산옥수수를 부가가치가 높은 공업용 등 타용도로 전환하여 국민전체가 부담하는 것이 농민을 위하는 정책배려에 합당하다고 본다. 이에 국산옥수수 사용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인상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국산옥수수 구매행위 자체를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국산옥수수 사용으로 인한 부담을 축산농가에 전가시킨다면 생산자들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 요청하였다.

채란계 부화종계 분과위원회 개최

금년도 11월 채란종계 부화분과 위원회가 지난 11

월9일(금)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10월중 병아리 출하량 및 평균 판매단가(참석 10개 부화장 집계)는 백색 385,100수, 갈색 1,229,900수, 백색 277~370원, 갈색 381~470원에 거래되었음이 나타났다.

다음은 중추사육 농장의 문제점 지적에 있어 중추사육 농장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부화장으로부터 덤핑 병아리를 입식, 조기 증체를 위한 육계사료 급여, 백신접종 기피 등 계획적인 생산원가 절감을 기하는 반면 고가판매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부 업자가 있어 실용계 생산농가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병아리 덤핑 판매 근절, ▲선량한 사육관리를 유도 계몽, ▲전국적인 중추농장 실태조사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편집위원회 개최

금년도 제11차 편집위원회(위원장 임병규)가 지난 11월14일 오후3시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11월호(통권 229호) 발간으로 창간 19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이번 회의는 그간 본지발행을 위해 정성을 기울인 편집위원들의 배려가 매우 컸음을 본회 정태원 회장이 참석하여 노고를 치하했다.

이제는 창간 역사도 긴만큼 양계인을 위한 대변지로 사명을 다해야 하는데 있어 독자적인 내용 구성은 물론 양계인들의 의견수렴에 주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전북지부 육계분과 북전주협의회
—화재당한 회원 도와—

불의의 사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회원을 동료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힘을 합해 도와주어 미담이 되고 있다.

본회 전북지부 산하 육계분과 북전주협의회원인 전주시 송천동 소재 백문진씨농장에 지난 11월17일 난로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 육계 1만여수와 계사가 전소했다. 이에 동료회원들은 화재를 당한 회원에게 100만원을 모아 전달하고 동료를 위로했다.

회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 김태근　　총무 : 박원모

임원 : 오길호, 김용현, 김병태, 서병규, 서원진, 김재모, 백문진

육용계 부화종계분과 위원회 개최
—위원장에 이순오 사장 선임—

본회의 업무를 보다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육용계부화종계 분과위원회가 처음으로 지난 11월23일(금)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육용종계부화분과 위원회 운영은 지난 제3차 본회 이사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채란종계 부화업과 분리시킨다는 취지에서 결정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이순오(충북 보은 죽전부화장)사장을 선임하였으며, ▲무허가 부화장 고발조치(월간양계지에 창구설치), ▲종계 유효기간 연장 요구(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환우의 적법성 인정), ▲무통계 병아리 생산 근절대책 강구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11월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선진시설 견학—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민기)가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 수원사업소에서 지난 11월24일(목) 회원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높은 시세를 유지하던 육계시세가 하루에 50~100원씩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모인 육계인들은 육계가격의 하락은 2~3일분이 체화되어 어쩔수 없지만 최근 육계호황의 영향으로 과열현상을 보여 병아리 가격이 400원이 넘어선데 대해 자제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육계업 전망은 사료통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서 사료통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허구성이 있음을 알아내고 이에 대한 정보교환이 있었다. 민주화시대에 육계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활성화와 단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다음 모임에서 이를 진지하게 모색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나고 경기도 발안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축산의 선진화된 육계사육시설을 견학하고 계사시설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축산단체장 조찬회 개최

축산단체장조찬회가 지난 11월 28일(월) 삼정호텔에서 있었다. 본회 정태원 회장과 황인옥 전무 외에 양돈·낙농육우·사료협회장과 전무단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배합사료 세제문제와 국산옥수수 사용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생산자단체 공동 명의로 일간신문과 전문지에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부과문제와 국산옥수수 사료용 배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호소키로 했다.

특히 국산옥수수 사용은 87년도산 150억원에 이어 금년도산 부담액이 약170억에 이르어 1%정도 생산비 상승요인에 있어 양축농가가 부담키 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일반 공업용으로 흡수해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88년 제4차 검정위원회 개최

'88년도 제4차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이 지난 11월30일(수)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검정위원회에서는 제22회 산란계 검정중간성적을 검토하고, 제21회 산란계 검정이 종료됨에 따라 성적을 분석하고 최종 성적을 검토한 후 기호표를 개봉하여 계종별로 성적을 대조 확인하였다. 제21회 산란계 검정성적의 세부사항은 추후 검토분석하여 검정성적 총괄표는 「월간양계」 12월호에 게재키로 했다. 한편 종계유효기간 연장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추후 더 연구키로 했다.

이날 검정위원회는 △오봉국 교수 △김춘수 교수 △한성욱 교수 △정선부 과장 △조윤연 원장 △황인옥 전무 △이규성 소장 △박중근 계장 등이 참석하였다.

제4회 전국닭고기요리솜씨대회
—최우수상에 「닭고기전골」 당선—

본회는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회장 왕준련)와 공동주최로 지난 11월11일(금) 오후1시부터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전국닭고기요리솜씨대회를 개최했다.

사전에 원고(닭고기 조리법)를 모집해 전국에서 342점이 접수되어 1차 원고심사를 거쳐 63명만 합격하였다.

원고심사에서 합격한 63명은 당일 현장에서 원고대로의 요리를 직접 만들어 제출했다.

대중적이고 맛있는 영양식으로 돋보이는 닭고기요리를 개발키 위한 이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 대회 참가자 외에도 관람자 687명이 모였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농림수산부장관상)을 차지한 고경영씨(여·33세·부천시)는 「닭고기전골」요리를 만들어 심사위원들의 많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에 닭숯불구이(장복순, 27세), 닭섭산적양념구이(최윤정, 39세)가 차지했다. 그밖에 장려상 10점, 특별상, 8점이 있었다(본문 88page 참조)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고의(高意)
—홍보협찬금 목표의 70.6%—

본회가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양계산물 소비촉진사업은 재원조달 방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양계인 및 유관업체·기관·단체 등에서 협찬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목표액은 1억5천만원이었는데 11월25일 현재 현금 및 현물포함액은 총 105,957,000원으로 70.6%를 달성했다.

작년 11월25일의 경우 130,558,600원이 모금되어 목표액 1억5천원의 87%를 차지했었다.

올해 업계의 경기가 '87년에 비해 다소 힘들긴 하지만 아주 저조한 실적에 그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민소득이 점차 증가하고 국가경제가 선진국 대열 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 모든 산업이 자구책으로 활발하게 판촉활동 등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경쟁상품인 수산물·타축산물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닭고기·계란의 경우는 열등식품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양계산물의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부단한 소비촉진 활동, 소비자에 대한 교육, 새로운 메뉴 개발·보급 등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소비촉진 홍보사업은 계속해서 활발히 진행되어어야 하며 양계인 및 유관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11월 중 50만원 이상 협찬은 서울사료(대표 양재의) 100만원, 김 현(발안농장) 100만원, 이종운(기륭농원) 50만원이 접수되었다.

"닭고기·달걀요리"책 제작
—307가지 요리 수록한 고급 책자—

본회는 소비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4×6판 "닭고기·달걀요리"책을 제작, 배부 중에 있다.

기존에 사용했던 팜프렛 종류의 인쇄물이 아닌 책자로 닭고기요리 20종 달걀요리 10종을 수록하고 있으며 내지 200아트 용지에 코팅이 되어 있고 비닐커버로 된 고급 책자이다.

하지만 제작비용이 많이들어 본회가 대량 배부하기엔 부담이 가므로 유관업체, 기관, 단체 등에서 판촉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고게재 가능하게 했으므로 관심있는 곳은 본회 홍보실(778-8103,4)로 연락하면 언제든지 협조 가능하다.

뉴캣슬 발생 전국으로 확산

최근 양계업계에 백신접종을 원천적으로 기피(브로일러)하거나 예방접종프로그램에서 사용회수를 줄이는가 하면 농장마다 자체 프로그램이 제각기 달라 뉴캣슬이 만연되어 큰 피해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축위생연구소 및 각도 가축위생시험소의 확인에 의하면(가검물결과) 닭질병의 대부분이 뉴캣슬병이고 ILT, IB도 약간 검출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대부분 농장에서 노출을 꺼리고 은폐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후 더욱 이 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육계·산란계 구분없이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여 예방에 다같이 노력하고 질병발생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가축위생연구소나 각 시도 위생시험소를 통해 가검물의 병성감정을 받아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현재 가검물 진단액이 품귀현상까지 빚어 농림수산부에 진단액 지원을 요청 중에 있다.